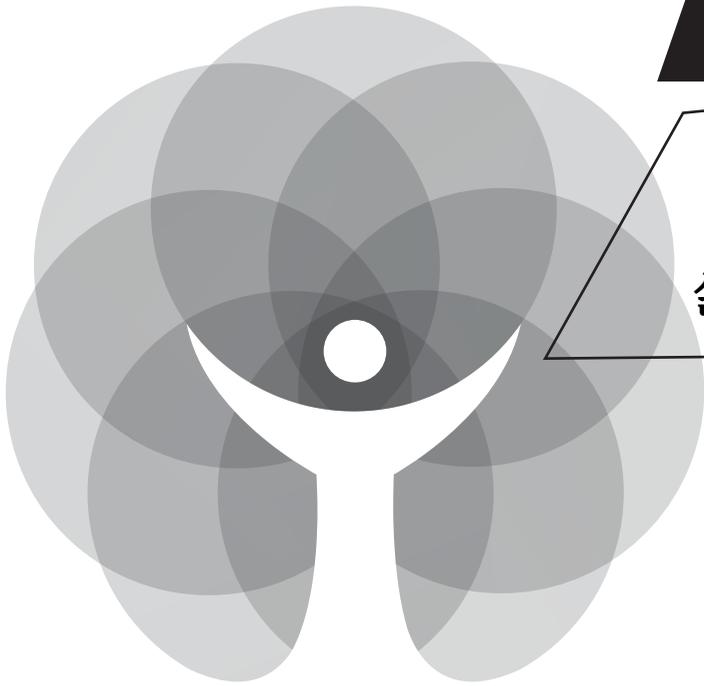


# 인도자 지침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

진보적 제자도를 통해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을  
삶 속에 실천하기



아만다 마이젠하이머(Amanda Meisenheimer)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소망·사랑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  
진보적 제자도를 통해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을  
삶 속에 실천하기

아만다 마이젠하이머(Amanda Meisenheimer) 지음

© 2021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 모든 권리가 있음.

United Methodist Women,  
475 Riverside Drive, 15th floor,  
New York, NY 10115  
unitedmethodistwomen.org

이 책에서 인용한 내용은 반쪽을 넘지 않고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  
비영리 목적으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 다음 문구를 삽입해야 함: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 진보적 제자도를 통해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을 삶 속에 실천하기 © 2021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에  
모든 권리가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이 책 안에 있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없이 복사할 수 없음.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성경은 표준 새번역을 사용함 © 1989  
모든 권리는 대한 성서 공회에 있음.  
대한 성서 공회의 허락을 받아 사용함.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목적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여성들의 공동체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경험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다.

## 비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전 세계 여성,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 비전의 실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한다.

우리는 성장할수 있도록 조직되며,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연한 구조를 갖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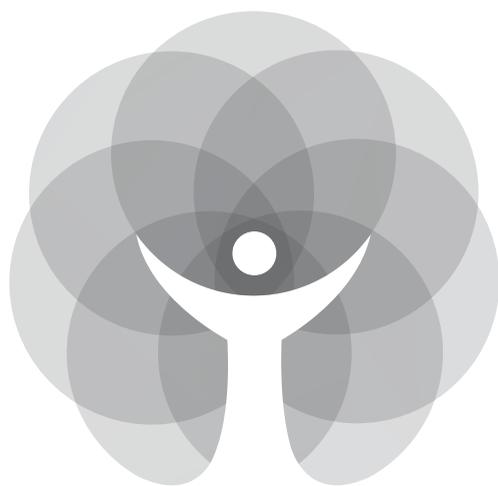
우리는 세계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공동체와 단체, 직장과 교회 및 공적기관의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킨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자비로운 봉사와 옹호를 통해 불공정한 정책과 체제를 바꾸려 일한다.

우리는 적합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여 개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인도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 목차

|                       |    |
|-----------------------|----|
| 서론 .....              | 5  |
| 첫째 모임: 땅에 속한 존재 ..... | 10 |
| 둘째 모임: 깨어있는 현재.....   | 20 |
| 셋째 모임: 역사적인 조명.....   | 30 |
| 넷째 모임: 의미있는 참여.....   | 38 |
| 부록 .....              | 46 |
| 저자 소개 .....           | 47 |



# 서론

---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보다 더 크고, 더 거룩하고, 모든 창조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무엇인가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신다.  
—대릴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sup>1</sup>

---

**이** 인도자 지침서는 무엇인가 더 큰 것의 일부가 되라고 하는 초청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전이며,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며, 끌어안기 버거운 소명이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 진보적 제자도를 통해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을 삶 속에 실천하기 책의 본문은 기독교인들에게 도덕적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점검해 보고 주장하라고 초청한다. 그러나 이 도덕은 옳고 그른 행동의 정해진 목록으로 쉽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도덕은 더욱 사랑이 넘치고 공정한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들이 평화와 은총 속에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라는 소명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는 일은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솔직하고,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할 수 있다. 이것이 비록 심오하고 영혼을 걸어야 하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이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인도자로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과 인내심을 주시고 이 여정으로 당신의 그룹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라.

당신이 이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을 때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보라. 당신이 공동체와 함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당신이 인도자로서 어떤 관점에서 인도하는 지를 생각해 보라. 가능하다면 인도하기 전에 믿을 수 있고 지혜로운 분과 함께 당신의 불안을 나누어 보라.

## I. 이 지침서를 이용하는 법

이 지침서는 대면 수업이나 화상 수업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화상으로 만난다면 모임에 적합한 화상 회의 방식을 정해야 한다. 줌(Zoom)이나 구글 회의(Google Meet), 그리고 스카이프(Skype) 등은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화상 공간을 제공해 준다. 어떤 화상 회의 방식을 택하든지 안전 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미리 살펴보고 참가자들에게 최상의 안전을 제공하도록 한다. 각 활동의 결론을 화상으로 할 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이 공부를 준비할 때 미리 생각해 둔다.

각 모임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많은 내용들은 화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1. 각 모임의 개요:** 각 모임은 진보적 제자도를 통해서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네 단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단계들의 개요는 교재 6쪽에도 요약이 되어 있지만 이 인도자 지침서의 각 모임 서두에서도 볼 수 있게 해서 참가자들이 이 책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도와주고 있다.
- 2. 모임의 목표들** 교재의 각 요소들은 참가자들의 목표들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들이다. 목표들을 잘 읽어 두면 인도자가 교재의 주요 주제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 3. 준비물 목록:** 이 교재는 최소한의 준비물이 필요하도록 고안되어 화상 모임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대부분의 필요한 준비물들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들, 즉 뉴스프린트나, 스티키 노트나, 칠판이나, 음원 자료들이나, 아니면 화상화면 등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인도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시청각 자료들을 사용하기를 권한다.
- 4. 음원 자료들:** 각 모임에는 노래 음원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참가자들이 원하면 묵상 일지를 쓰는 동안 전체 화면에서는 묵음으로 하고 자기 개인 기기에서 골라서 틀거나 수신기를 끄아서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모임 전에 음원 목록을 미리 보내주어서 참가자들이 자기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음원 공급업체, 가령 스포티파이(Spotify), 애플뮤직(Apple Music), 아니면 유튜브(YouTube)에서 검색해 두도록 한다.
- 5. 모임은 시간:** 모임은 시간은 사려깊은 배움을 위한 대화로 인도하는 적당한 진입로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 준다. 이 시간은 도전이 되는 주제들을 토론하기 위해 애를 쓰기 전에 자신들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는 공간이다. 인도자는 각 과의 주제에 관련된 영적 대화를 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초를 켜거나 아니면 제단을 만들 수도 있다. 작은 테이블을 하나 골라서 천을 씌우고 돌멩이나 초, 십자가, 꽃 혹은 예술 작품 등 묵상을 할 수 있는 작품들을 올려 놓는다.
- 6. 기도:** 각 기도문은 그 모임의 주제들을 반영하여 쓰여진 것들이다. 그 기도들은 인도자들이나 참가자들이 읽을 수 있는데 시간이 없다든지 등의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즉흥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7. 학습 단계들:** 각 모임의 중요한 전개는 “학습 단계들”이라고 불리는 세 단위로 되어 있다. 각 학습 단계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 책에서 발췌한 중요 주제나 요점들을 배우도록 그 주제를 중심으로 전체 모임 혹은 소그룹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소그룹으로 할 때는 테이블을 두고 대면으로 하든지 줌(Zoom)같은 화성회의 방식을 사용하든지 네 다섯 명이 이상적인 숫자이다. 대부분이 학습 단계들은 전체 모임에서 보고하는 짧은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마감한다. 이 보고 시간은 소그룹에서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각 그룹이 성령께서 자신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지를 분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도 같이 나누도록 권한다.  
어떤 학습 단계들은 소그룹에서 진행될 것이다. 가능하다면 각 소그룹 인도자들을 미리 골라서 각 모임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화상 회의 방식을 사용할 때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화상으로 소그룹이 나누어 질 때는 인도자가 각 그룹을 감독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 8. 마치는 기도:** 모든 모임은 기도로 마친다.

**9. 묵상 나눔 화면:** 참가자들에게 각 모임이 끝날 때 나머지 시간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반응을 화면에 (역자 주: 줌 같은 경우는 채팅 창에) 간단히 문자로 적어서 나누도록 권한다. 아니면 모임 중간 휴식 시간에 자신들의 생각을 적어도 좋다. 이 화면은 나중에 소그룹 토론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화상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이런 문자들은 모임이 끝난 후에 더 묵상하도록 자료로 보내줄 수도 있다.

**10. 추가 성경 자료들:** 각 모임은 추가적인 토론 주제들을 고르거나 추가 학습 단계를 구성하거나 혹은 모임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생각들을 탐구해 볼 수 있게 하는 주제들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로 마친다.

**11. 시간** 각 활동에는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5 분, 20 분 등)

**12. 화상 모임을 위한 제안:** 각 활동은 줌(Zoom)이나 구글 잼보드(Google Jamboard)같은 화상 회의를 통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안들을 담고 있다. 화상 활동은 종종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인도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직접 준비하고 연습해 보아야 한다. 회의 전에 먼저 자신이 선택한 화상 회의 방식의 특성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화상으로 이 교재를 인도하기 전에 점검하기 위해 자신과 화상 회의 방식의 특성에 대해서 점검해 볼 내용들:

- A.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자동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인도자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것인가?
- B. 참가자들이 자기 카메라를 켜고 있을까 끄고 있을까? 이것을 선택하도록 할까 아니면 자동으로 할까? 카메라를 필수로 할까?
- C. 참가자들 소리를 꺼놓을까? 발언을 인도자가 통제할까 아니면 각 참가자가 개인적으로 통제하게 할까? 뜻하지 않은 배경 소음이 참가자 누구에게서도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방해음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뭐라고 하게 되면서 대화를 진행하기 어렵게 됨을 기억한다.
- D. 화면 공유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까? 화면 공유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컴퓨터에서 소리도 공유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다른 참가자들이나 인도자들에게 자신들의 화면을 공유하게 할 것인가? 만약 다른 사람이 적절하지 않거나 실수로 화면을 공유할 때 그것을 중단시키는 법을 알고 있는가?
- E. 당신이나 다른 보조 인도자가 참가자에게 소리나 화면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도와주는 법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기술적인 간단한 도움을 줄 사람을 정할 수 있는가?
- F. 당신의 그룹 크기에 따라서 어떤 활동은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것은 화상 회의 방식 중 <브레이크아웃> 즉 소그룹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소그룹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줌(Zoom)에서 미리 한 사람씩 소그룹에 정해서 나누어 놓을 수도 있다. 아니면 한 사람씩 짝을 지어서 채팅을 통해서 만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한 방법들을 숙지 해 놓고 그 기능을 편하게 사용도 하고 설명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더 많은 정보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미션 유(Mission U) 웹사이트에서 교재를 화상으로 인도하는 법을 찾아보라: [unitedmethodistwomen.org/Media/PDF/MissionU/VirtualGuidelines.pdf](http://unitedmethodistwomen.org/Media/PDF/MissionU/VirtualGuidelines.pdf). 만약 당신이 화상 회의 방식을 새롭게 접한다면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때까지 이런 기능들을 연습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록 화상 회의를 하는데 익숙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첫 모임 전에 이런 내용들을 점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 II. 준비

이 책이 우리 자신의 도덕적 증언에 대한 전제들을 점검해 보라고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성찰을 위한 마음과 생각을 미리 가지도록 한다. 어떤 도덕적 질문들이나 정의의 문제가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가? 당신의 전제를 의문시할 때 생기는 불안을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당신이 아직 생각해 보지 않은 도덕적인 최전선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세상 속에서 하는 교회의 도덕적 증언에 관한 모든 효과있는 공부에는 반드시 자신의 개인적 및 공동체와 세상 안에서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을 포함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특권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자인 것은? 부정하게 얻은 힘이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의 위선들과 당신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위선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 보라. 우리가 믿는 바와 행동하는 것 사이의 깊은 간격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이 심연을 토론하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도덕적 증언은 골치 아픈 일이며 교회의 초기부터 골치거리였다. 이 공부를 준비한다는 것은 정확한 답이 없는, 종종 예수님이 규정해 주신 양자택일 사이의 회색 지대에 답이 있는 어려운 문제들에 편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들 중의 어떤 이들은 이런 긴장에 다른 이들보다 더 편하게 생각한다. 당신은 빠르고 단순한 답을 대는 이들과 이런 혼돈으로 당황하는 이들을 위해 은혜의 공간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두 세계관이 충돌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생애를 잘 공부하라. 예수님이 율법과 문화적인 규범을 따르면서 올바른 삶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그 시대에 대해서 읽어 보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규정을 어기고 기대를 무너뜨리고 무질서를 만들고 세상을 뒤엎어 놓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읽어 보라. 시작할 때 이런 복합적인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 두도록 한다.

## III. 준비물

추천 슬라이드, 포스트 혹은 인쇄물들:

- 마음을 모으는 인용구들
- 서론적인 질문들
- 묵상 일지를 쓸 수 있는 화면들

다른 준비물들:

- 뉴스프린트
- 포스터보드 (선택 사항)
- 스티키 노트
- 학생용 풀
- 마커, 크레용, 색연필들
- 다양한 이미지들 (잡지나 인쇄물 등에서 얻은 것)
- 가위

## IV. 방 분위기 파악

도덕적인 지도력은 악이 파생하게 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구조와 제도를 제대로 보게 해 준다. 대릴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는 연합감리교회가 예언자적인 거울로 기능했던 여러 상황들을 연대기별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예언자적인 외침은 억압으로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 그 짐이 지워졌다. 이 일은 우리가 힘이 빠지게 한다. 왜냐하면 정의 사역은 개인적이며 끝이 없고 외롭기 때문이다. 이런 싸움으로 기운이 빠져서 당신의 공간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혼자 외롭게 투쟁해왔는가? 누가 해고당하거나 괴롭힘 당하거나, 어린애 취급을 당하거나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였는가? 다른 이의 겉모습만 보아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분명하게 보인다. 만약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모임이 여자들만 모인 것이라면 당신은 이미 개인들이 경험한 한 겹의 억압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알고 있는 것이다. 인도할 때 억압의 깊은 층들과 특권의 여러 층들이 모두 한 방에, 아니 어쩌면 한 사람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해라.

당신의 모임에서 본문의 도전들을 가지고 씨름할 때, 어떤 이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공간이 필요하며, 어떤 이들은 불안을 느끼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안락함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방 분위기 파악은 한 그룹 안에 담긴 다양한 반응들을 주시하는 안목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인도자로서의 역할은 부정의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가능한 안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고통을 아는 이들에게는 가능한 부드러운 공간을, 성장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는 가능한 도전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 V. 공동체 지침과 그룹 언약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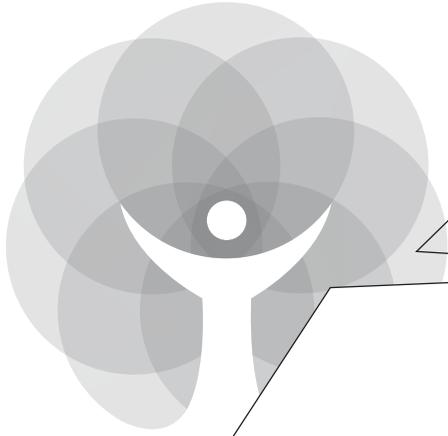
당신이 많은 소그룹에 참여해 왔다면 이 흔히 볼 수 있는 작업은 계속 반복되는 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 지침들은 거의 언제나 같고 대화는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그 작업은 꼭 필요하다.

우리들은 어떻게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를 하루 하루가 더 지나고 더 많은 목소리들이 확대되는 동안 계속 배우고 있다. 당신은 지난 번 공동체 지침을 다룰 때 학습 장애를 다루는 지침을 다룬 적이 있는가? 감각 장애 문제는 다루어 보았는가? 성차별을 하지 않는 올바를 단어 사용법에 대해서 다루었는가? 우리의 지침들은 모임 때마다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자신에게 언제나 더 나은 존재 방식과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더 나은 방법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지침에 하나의 지침을 더 할 때 당신 그룹은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지침들이 모든 네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런 작업을 진지하게 인도할 것에 헌신하라. 당신이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언약을 기본이 되는 문서로 중요하게 여길 것을 강조하라. 경계를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 신뢰를 쌓아가라. 이것이 가족 공동체의 일이다.

## 후주

1.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 진보적 제자도를 통해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을 삶 속에 실천하기* (뉴욕: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2021), 3 쪽.



## 첫째 모임

# 땅에 속한 존재

### 모임 개요

- 관점: 피조된 존재
- 하나님의 은총과 활동: 선행 은총, 주어진 가치
- 우리의 도덕적 활동: 인정하기
- 관계적 맥락: 존엄성
- 도덕적 강조점: 평등과 인권

### 모임의 목적들

참가자들은

-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할 것이다;
- 언약을 통해 그룹 규칙을 정할 것이다;
- 예절, 도덕, 윤리를 대조해 보고 왜 이런 구분이 중요한 지를 탐구할 것이다;
- 우리 자신의 선악 개념이 어디서 생긴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 모든 사람은 근원적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만하다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것이다.

### 준비물

권장 슬라이드나 포스트나 인쇄물들:

- 마음을 모으는 인용구들
- 서론적인 인용구들
- 묵상일지를 쓸 화면들
- 학습 단계 III 질문들

다른 준비물들:

- 뉴스 프린트
- 포스터보드 (선택사항)
- 학생용 풀
- 마커, 크레용, 색연필
- 다양한 이미지들 (잡지들, 인쇄물 등에서 얻은 것)
- 가위

## 모임을 위한 음원자료들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면 묵상 일지 쓰는 동안 자기 개인 기기에 수신기를 켜고 (혹은 모임을 화상으로 할 때는 자기 화면에서 소리를 묵음으로 해 놓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한 후 다음 노래들을 틀어 보라고 권한다.

“웰컴 인투 디스 플레이스,” 올랜도 화레쯔(Orlando Juarez) 작곡, 게리 올리버(Gary Oliver) 연주  
“모어 댄 아이 에버 익스펙티드,” 쥬다 밴드(Judah Band)  
“유 새이,” 로렌 데이글(Lauren Daigle)  
“라이크 더 듀,” 쥬디쓰 맥칼리스터(Judith McCallister)  
“비 다우 마이 비전,” 찬송가,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451 장

## 모이는 시간

15 분

참가자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아래 요약된 저자가 말하는 이번 교재의 주요 주제들을 묵상하라고 초청한다. 또한 마가 복음에서 발췌한 본문을 읽어 보라고 한다. 이 인용구들은 뉴스프린트에 쓰거나 화면에 비출 수 있다.

이 교재는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삶을 실현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비추어 부정의와 고통에 대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반응에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3쪽).

이 교재에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부활의 좋은 소식을 실천할 수 있을 지를 살펴 볼 것이다. 세례 예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책은 망가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과 하나님의 선교에 합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도덕적 증언은 모든 세례 받은 이들이 하는 사역이다 (4쪽).

### 누가복음 4:16-21

예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에게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러한 마음을 모으는 본문에 대한 응답으로 참가자들은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에게 어떤 대명사가 해당되는지를 나눈다. 이렇게 본인의 대명사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그녀, 그, 혹은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할 것이다. 한 사람을 자신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이름과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중요하다.

각 참가자들에게 자기의 이름과 대명사를 소개한 후에 다음 문장 중의 하나를 완성하라고 초청한다.

선택지 A: 내가 “좋은 도덕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_\_\_\_\_을 생각한다.

선택지 B: 나는 \_\_\_\_\_에 대한 도덕적 응답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

**화상회의 경우:** 첫 인용구들을 화면에 보여주고 세 사람에게 큰 소리로 읽도록 부탁한다. 화면에 보여줄 수도 있고, 채팅 방에 올려 놓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를 소개하는 동안에 볼 수 있을 것이다.



## 기도

인도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정의의 좁은 길로 부르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항상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영은 우리들을 제자도와 봉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이 모든 인간의 허물을 덮어 흘러 넘쳐난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자비는 우리의 불안전과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열고 주님과 주님의 지혜를 오늘 만나고자 합니다.  
아멘.

## 학습 단계 I: 공동체 지침들과 그룹 언약

20 분

공동체 지침과 그룹 언약의 목적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함께 만들어 보라고 초청한다.

공동체 지침들은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 동안 무엇이 받아들여지고 무엇이 부적절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를 함께 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지침들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목표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우리에게 풍성하고 건강한 토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피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지침들은 우리에게 우리들의 개인적인 편견들과 특권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식하도록 초청한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

- 비밀 보장
- 인종, 성별, 장애, 연령, 성적 정체성, 인종 등에 관련해서 포용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
- 시간 엄수
-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 적극적인 경청
- 녹음, 사진, 소셜 미디어 포스트 등과 관련된 규약

참가자들에게 지침들을 제안하게 하고 그것들을 뉴스프린트에 나열해서 저장한 후에 모임 시간 내내 참조할 수 있도록 사용한다.

공동체 지침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도움이 되는 경계를 정해 주는 한편, 그룹 언약은 서로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집단적인 성취를 보여 준다. 우리의 언약은 우리들이 가능한 한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는 일을 돕는 정해진 한계들에 신성하게 <예>하고 답하는 것이다.

그룹 언약은 분명하고 간단하고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 모이든 화상으로 모이든 모든 참가자들이 그룹 언약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게 한다. 필요하다면 지침들을 잘 다듬어서 언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개인적인 헌신은 사인을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이모지를 통해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다.

**화상회의 경우:** 당신의 공동체 언약으로 사용할 문건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화면에 공유한다. 사람들이 채팅 방에 적거나 말로 제안을 하는 지침들이 있으면 그것을 문건에 추가로 적어 넣는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마이크를 켜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거나 직접 채팅 방에 적어 넣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나눈 후에, 전체 토론을 하면서 그 언약을 다듬고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일단 토론이 끝나면 사람들이 언약에 동의한다는 표시로 엄지를 치켜 들거나 채팅방에 적어 넣거나 이모지를 누르도록 한다.



## 학습 단계 II: 왜 우리는 이것을 믿는가?

30 분

이 교재 서론에서 대릴 스티븐스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증언에 관한 어떤 논의든지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기초가 되는 믿음, 모든 사람이 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은 우리가 도덕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과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에 영감을 준다. 스티븐스는 이렇게 쓴다. “선행 은총을 통해,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가치를 부여해 준다. 그리고 그것이 인권과 평등에 대한 헌신의 근거가 된다” (7쪽).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윤리적 및 도덕적인 주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 학습 단계를 사용해서 이런 믿음의 근거와 이 믿음에 영감을 받은 생각들을 살펴 보라.

당신은 왜 모든 인간이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믿는가?

*시작할 때 참가자들이 이 질문을 묵상하며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노트를 할 시간을 몇 분 준다. 참가자들에게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라고 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믿는데 그 이유는 ...”*

개인적으로 그 질문을 묵상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에는 세 명에서 다섯 명이 모이는 그룹으로 나눈다.

나누어진 그룹들은 이 믿음의 근거와 이유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런 모음에는 일반적인 이유, 특별한 이유, 성경적 이유, 경험적인 이유, 과학적인 이유, 보편적인 이유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그 모음에는 중요 단어, 그림, 노래 가사, 영화 제목, 선명한 이미지, 혹은 다른 수단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뉴스프린트나 포스터에 당신의 모음집을 만들고 그것을 발표할 동안 전시하거나 들고 있다.

### 전체 모임 발표

*이 학습 단계 마지막 10분은 토론을 위해 전체가 함께 모인다. 이 교재에 나오는 이번 토론이나 다른 모든 토론들을 위해서 당신의 공동체와 대화에 가장 적합한 질문들을 골라 보라. 당신은 또한 이런 질문들을 대화를 시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대화를 당신의 그룹에 가장 적합한 분야로 이어갈 수도 있다.*

*그룹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경험한 주제들과 통찰들을 나누라고 초청한다: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모든 인간이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처럼 행동하였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우리가 모든 인류의 가치를 위해서 씨름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우리 주변의 세상의 도덕과 갈등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믿음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 대릴 스티븐스가 제기한 이 질문을 묵상해 보라: “당신이 비록 분열을 초래할 지라도 도덕적 잘못에 대해 발언한 때를 생각해 보라.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증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13쪽).



**화상 회의 경우:** 이 활동을 화상회의에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방법이 있다. 첫째로는 문서를 만들어서 전체 그룹에 보여줄 수 있다. 둘째로는 구글 잼보드(Google Jamboard)같은, 협동작업을 할 수 있는 화상 칠판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참여해서 글을 올리고 쓰고 할 수 있다. 셋째 방법은 참가자들이 집에서 자기 자신이 모임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그룹과 나누도록 올리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쓰려면 참가자들에게 미리 준비물을 준비하라고 노트를 보내야 할 것이다.

### 학습 단계 III: 예절인가, 도덕인가, 아니면 윤리인가?

45 분

우리는 “모든 인간이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말은 쉽게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치에 근거해서 도덕적인 결정들을 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의견이 갈리게 된다. 우리의 문화, 가족 출신, 삶의 경험들, 특권들, 그리고 내적 상처들 모두가 우리가 공통으로 지닌 가치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는가를 결정한다. 때로는 이런 영향들 때문에 우리들의 가치가 변하게 도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전제로 하는 가치들 사이의 괴리를 항상 보지는 못한다. 또한 우리들은 우리의 공통된 가치들의 인간적인 표현들의 잠재적으로 얼마나 넓은지 보지 못한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가진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고정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옳고 그름과 도덕과 비도덕의 전제들을 한 번 살펴 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내적인 작업은 우리가 애지중지해 왔던 믿음들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고통이나 괴로움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의 치우침 때문에 형성되었던 그 방식들을 검토해야 한다. 때로는 그것이 백인 우월주의라는 거짓말이기도 하고, 가부장제도의 굴레이기도 하고, 가난의 부정의이기도 하고, 특권의 뽀뽀함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혹은 내적인 상처의 고통일 수도 있다.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내 관점을 형성해 왔는가? 어떤 점에서 내 이해는 너무 왜소한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형성했던 영향력들을 의문시할 때,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우리를 도전하고 또 이러한 새로운 방향설정의 여정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도덕적 증언을 점검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대릴 스티븐스는 예절과 도덕과 윤리를 구별되는 세 가지 개념으로 묘사한다.

**예절에 대하여:** “우리가 적절한 예절을 지키면, 우리는 우리 문화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게 된다. 적절한 예절을 지키는데는 어떤 도덕적인 분별이 요구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기대되는 대로 잘 따르면 된다” (14쪽).

**도덕에 대하여:** “도덕은, 예의와는 다르게, 무엇이 바르고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덕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도덕은 문화에 좌우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 (15쪽).

**윤리에 대하여:** “도덕적 증언의 세 번째 차원은 윤리, 즉 우리의 도덕을 의도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다. 윤리적 성찰이 필요한 것은 특히 도덕이 변하거나 논쟁거리가 되는 경우이다. 윤리는 정당화하거나, 이유를 설명하거나 논리와 연결시키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 준다. 이것이 윤리의 과제이다” (17쪽).

세 명이나 네 명 정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함께 그 안에서 다음의 명제들을 본문의 설명에 근거해서 예절과 도덕과 윤리로 구분해 보도록 한다. 이 문장들은 반드시 옳다거나 그른 것은 아니지만, 그 문장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관한 누군가의 견해를 함축하고 있다. 당신은 모든 문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결론에 매 번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다. 불일치를 볼 때면,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들의 삶의 경험들과 정체성이 우리의 관점을 형성한 방식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 보라. 이러한 문장들의 저변에 흐르는 윤리는 무엇인가? 변한 혹은 변하게 될 도덕은 무엇인가? 이런 문장들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 (이 문장들은 부록에서 인쇄할 수 있는 형태로도 주어져 있다).

- 흠치지 마라.
-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고,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지 마라.
- 성관계는 결혼까지 미루라.
- 동물들을 인도적으로 대하라.
- 신체적인 폭력이 잘못이고 효과가 없다면,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도 잘못이다.
- 우리가 생명의 거룩함을 믿는다면, 사형제도에 반대해야 한다.
- 실수로 시계가 울리는데도 자고 일을 하지 못했다면 직장 상사에게 감기에 걸렸다고 말해라.
- 누군가 선물을 주었으면 “감사합니다”하고 말해라.
- 고용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
- 회전할 때는 회전등을 깜박여야 한다.
- 결혼식에서 불평하지 마라.
- 재채기할 때는 팔을 구부려서 해라.
- 아이들이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강간이다.
- 살인하지 마라.
- 다른 사람을 마음 속에서 죽이는 것을 허용하였다면,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그들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
- 가상극이나 비디오 게임을 하는 시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 아랫배가 드러나는 블라우스를 입지 마라.

**화상회의를 할 경우:** 문장들의 목록을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나누어진 그룹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게 한다. 이 내용을 채팅방에서 나눌 수도 있고 미리 이메일이나 그들이 열 수 있는 문서로 보내줄 수 있다. **참조:** 이 지침서를 출판하고 줌(Zoom) 그룹을 만들 때 인도자만 방에 혼자 남지 않게 인도자 방도 하나의 소그룹 방이 되게 하라.



## 전체 모임 발표

이 학습 단계 마지막 10분은 토론을 위해 전체가 함께 모인다. 이 교재에 나오는 이번 토론이나 다른 모든 토론들을 위해서 당신의 공동체와 대화에 가장 적합한 질문들을 골라 보라. 당신은 또한 이런 질문들을 대화를 시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대화를 당신의 그룹에 가장 적합한 분야로 이어갈 수도 있다. 질문해 보라:

어떤 질문이 살펴보기가 가장 힘들었는가? 언제 불안감을 경험하였는가?

언제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가? 그것들이 도움이 되었는가?

만약 당신이 다른 참가자들과 동의하지 않았다면, 왜 그러한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다른 관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당신의 관점이 다른 이들과 다를 때 당신은 어떻게 느꼈는가?

당신은 그런 차이들을 어떻게 소화하였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인 입장을 취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거나 주의  
를 기울이지는 못한다. 때로는 우리는 잘못 알게 된다. 본문에 나오는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라.

###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리에서 뽑은 생각해 볼 질문

- 당신이나 당신의 신앙 공동체가 도덕적인 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했다가 나중에 그 입장이 잘못되었음을 혹은 전적으로 옳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후에 입장을 바꾸었던 때를 나누어 보라. 이런 경험에서 볼 때 도덕적 증언의 위험성에 관해 당신은 무엇을 배웠는가?



## 마무리 묵상

10 분

감리교인들은 우리 교단의 시초부터 도덕적 증언을 놓고 씨름해 왔다. 대릴 스티븐스는 우리 교단이 술, 담배, 이혼, 도박 등의 도덕적 갈등을 통해 걸어온 여정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sup>2</sup> 우리가 이런 문제들로 씨름한 이유는 우리는 “개인적인 행동이 중요성을 가진다”(17쪽)고 믿고 있기 때문이고 그 가치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참가자들에게 함께 하는 이 여정이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를 신실하게 동행하는 것이 이 중요한 일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완전하거나 모든 윤리적 및 도덕적인 문제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일에 헌신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모든 이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초청한다.

## 기도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과 정의의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나 그 길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지혜를 다듬고, 우리의 아픔을 표현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찾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며 본 어려운 진리들을 소화할 수 있게 도우시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에 평안을 찾게 하소서. 아멘.

## 묵상 일지를 위한 화면

다음 모임 전에 (아래 상자에 들어있는 본문에서 발췌한 질문을 포함해서) 다음 질문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질문들을 묵상해 보라:



당신의 신앙 공동체가 당신의 도덕적 증언을 형성한 방식은 무엇인가?

성경이 당신의 도덕적 증언을 형성한 방식은 무엇인가?

어떤 도전을 당신은 당신의 삶에 받아들여서 당신의 삶이 당신의 도덕적 증언을 삶 속에 실천하도록 할 것인가?

##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에서 발췌한 묵상을 위한 질문들

1. 도덕적인 규율의 불확실성과 필요성을 생각해 보라. 당신이 어릴 때 배운, 그러나 지금은 한물 간 도덕적인 기대 하나를 말해 보라. 지금도 지키고 있는 지속적인 도덕적 기대 하나를 말해 보라.
2. 공공 정책 옹호의 필요성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당신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을 지원하는 일에 개입해 본적이 있는가? 여기에는 편지쓰기, 투표하기, 지역사회 토론에 참석하기, 지역 국회의원 접촉하기 등이 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당신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sup>3</sup>



## 추가적인 성경 자료들

여기에 적합한 인용구들을 사용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하게 하거나 추가적인 학습 단계를 만들어 보거나, 생각들을 더 충분히 살피도록 한다.

### 미가 6:8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 이사야 1:17

옳은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 잠언 31:8-9

너는 병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 예레미야 2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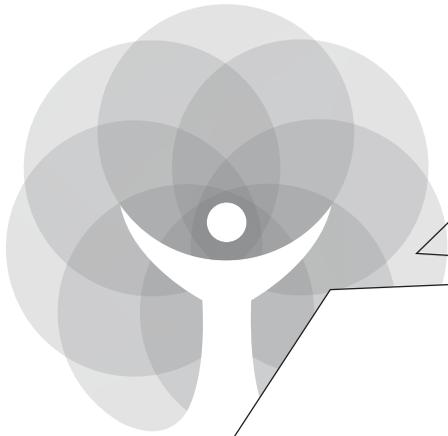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서, 그 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너는 이와 같이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아, 너는 네 신하와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네 백성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둘째 모임을 준비하면서, 교재 본문의 제 2 장을 읽어라.

## 후주

---

1. 대릴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 "성찰을 위한 질문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진보적 제자도를 통해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을 삶 속에 실천하기* (뉴욕: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2021), 13 쪽.
2. 스티븐스, *보여주라*, 16-17쪽.
3. 스티븐스, "성찰을 위한 질문들," *보여주라*, 19쪽.



## 둘째 모임

# 깨어있는 현재

### 모임 개요

- 시각: 현재
- 하나님의 은총과 행동: 인간의 죄와 의인 은총
- 우리의 도덕적 행동: 공감
- 관계적 상황: 사랑
- 도덕적 강조점: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필품들

### 모임의 목표들

참가자들은

- 함께 하고 공감하는 것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 공감을 방해하는 개인적 및 제도적인 장애물들을 검토할 것이다;
- 경계를 넘는 공감의 역할을 탐구할 것이다.

### 준비물

권장하는 슬라이드 혹은 포스트 혹은 인쇄물들:

- 마음을 모으는 인용구들
- 서론적인 인용구들
- 여섯 단어로 된 이야기 예들
- 묵상 일지 화면들
- 각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도표

다른 준비물들:

- 뉴스프린트
- 마커
- 스티키 노트

## 모임을 위한 음원 목록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면 묵상 일지 쓰는 동안 자기 개인 기기에 수신기를 켜고 (혹은 모임을 화상으로 할 때는 자기 화면에서 소리를 묵음으로 해 놓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한 후 다음 노래들을 틀어 보라고 권한다.

“올 비롱 히어,” 더 매니(The Many)

“노 아웃사이드스,” 렌드 콜렉티브(Rend Collective)

“유 윌 비 파운드,” 디어 에반 한센(Dear Evan Hansen)

“네버 고나 렛 유 다운,” 콜비 케이랏트(Colbie Caillat)

“웨이 메이커,” 베니 존스(Benita Jones)

## 마음을 모으는 인용구들

참가자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아래 요약된 저자가 말하는 이번 교재의 주요 주제들을 묵상하라고 초청한다. 또한 마가 복음에서 발췌한 본문을 읽어 보라고 한다. 이 인용구들은 뉴스프린트에 쓰거나 화면에 비출 수 있다.

증언은 하나님이 나의 이웃을 통해 하시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4 쪽).

증언은 우리 이웃들이 말 못할 사정으로 괴로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주의를 기울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부름 받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마치 우리 이야기인것 처럼 돌봐주는 것이다 (35 쪽).

### 빌립보서 2:1-4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 모이는 시간: 여섯 단어 간증

20 분 (5 분 설명, 10 분 작성, 5 분 나눔)

저자 대릴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는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온전한 관심을 주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주문한다. 어떻게 그들의 깨어 있는 현재가 이웃의 사랑을 표현하였는가? 당신은 그런 만남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였는가? 오늘 우리는 그런 종류의 경청을 연습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인도자는 다음 활동을 설명하고 예를 포스터나 인쇄물이나 슬라이드에 올려 놓고 그룹에서 자기 이야기를 쓰는 동안 볼 수 있게 한다. 자기들의 원한다면 수신기나 개인 기기를 사용해서 (그룹이 화상으로 만나서 하는 경우 스크린의 소리를 묵음으로 해놓고) 참가자들이 묵상을 위한 음악을 틀고 자기 이야기를 쓰도록 한다.

2014년에 제스 카스트(Jes Kast) 목사는 자기 트위터(Twitter) 계정(@RevJesKast)에 해쉬태그 나의 여섯 글자 간증(#MySixWordStoryofFaith)을 올렸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로 이어서 짧은 간증을 올리기 시작했다:

예수의 피땀에 없네. @PensivePoet97

사랑에 잡혀서 두려움을 잊었네. @revsean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추종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skafuller

미치겠네 나도 모르겠네 @keegzzz

이 활동은 아주 파급효과가 컸다. 그것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여전히 인기리에 진행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신앙 여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 보도록 자극하기 때문이다. 당신이라면 당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여섯 글자로 말할 수 있을까? 잠시 시간을 가지고 당신의 이야기를 여섯 글자로 써보라. 그것은 아주 단정적이고 완성된 것일 수도 있고 초안이라서 나중에 개정을 할 수도 있다. 당신의 간증이 당신의 전체 여정을 담을 필요는 없다. 유일한 법칙은 그것이 6단어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6단어 간증을 개인적으로 간직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그룹하고 나눌 수 있는 것까지 두 종류로 쓸 수도 있다. 시간이 더 있다면 몇가지 내용으로 적어 보라.

설명이나 더하는 말없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할 것이다. 나중에 학습 단계 1에서 당신의 6 단어 이야기를 설명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화상 회의를 할 경우:** 사람들에게 가기의 간증을 큰 소리로 읽거나 채팅 방에 쓰면 인도자가 큰 소리로 읽어 줄 수 있다.



## 기도

창조주 하나님,  
주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쓰는데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과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행복한 이야기들과 눈물로 가득한 고난을 아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 경험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공감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나눌 때도  
어떻게 공감할 지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잘 듣게 하소서.  
아멘.

## 학습 단계 I: 주의 깊게 듣기

30 분

### 소그룹 활동

참가자들에게 소그룹 원 안에 앉도록 초청하고 자기들의 여섯 글자 간증을 확대 설명하여 나누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가자들이 말할 때 잡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게 할 수도 있다. 만약 자신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막대기를 옆 사람에게 넘기라고 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택한 6 단어와 그 의미를 1분 내지 2분 동안 설명한다. 이것을 하는데 옳고 그른 방법은 없다. 각 참가자가 자신의 이야기의 저자이고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정당한 이야기이다.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의도한 의미와 공감하고 자신과 연결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듣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이 우리와 대화하는 그 사람 혹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일 때 우리는 적극적인 경청자가 된다. 우리의 전체적인 자세가 그 사람에게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네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너의 경험을 존중한다”고 말을 하고 있음을 표현하게 한다 .

우리는 우리가 주의하고 있음을 몸으로, 태도로, 응답하는 목소리 굽기나 높낮이로, 그리고 얼굴 표정을 통한 반응으로 보인다. 주의 집중과 적극적으로 듣는 일이 공감으로 가는 첫째 걸음이다.

적극적인 듣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보다 편견없이 들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응답하기 위해서 듣고 싶어하는 유혹을 피하게 해 준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알기 위해 듣고, 편견 대신에 말하는 자가 표현하고 자 하는 의미에 집중한다. 주의를 기울이는 경청자로서 우리는 서로 듣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주의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나누는 진실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말들이 공감하는 반응으로 들릴 수 있다:

그것 참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줘 고마워.  
그런 일이 있었다니 속상하다.

**화상 회의를 하는 경우:** 참가자들에게 한 번에 한 명씩 간증을 하게 한다. 한 사람이 끝내면, 두 세 명이 반응하게 한다. 그리고는 다음 참가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든지 건너 뛰게 한다. 자원하는 사람이 있냐고 묻지 말고, 알파벳 순서로 하든지, 화면에 나온 순서로 하든지, 각 그룹에 가장 적합하게 여겨지는 순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줌(Zoom) 혹은 다른 화상 회의 형태로 경청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어려움을 미리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화상으로 하는 경우

참가자들에게 줌 (Zoom)으로 경청하는 법을 나누어 주고 따르게 한다:

1. 자신이 말하지 않을 때는 자신의 소리를 꺼놓는다.
2. 화면을 보고 말하는 사람을 바라본다.
3. 자신의 얼굴 표정과 당신에게 조용히 반응하는 응답을 인식한다.
4. 화면에서 손드는 기능을 사용하고 할 말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말하도록 한다.
5. 우리가 화상으로 하는 경우 가끔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가 있다. 토론 인도자는 한 사람 씩 이름을 부르거나, 자기 의견을 말하게 해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만약 말하기 싫을 때는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면 된다.

### 소그룹 보고

이 활동을 당신의 소그룹들에서 하게 한다.

당신의 그룹에서 이 질문들을 다 소화하기 힘들겠지만, 다음의 질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들이다. 질문들을 다 활용하려고 무리하지 마라. 단지 당신의 그룹에 가장 잘 맞는 한 두 개의 질문을 선택하면 된다. 나머지 질문들은 원한다면 나중에 개인적인 묵상을 하도록 화면에 올려줄 수 있다.

- 적극적인 경청이 당신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경청을 하지 않았다면 놓쳤을 무엇을 들었는가?
- 경청의 습관을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 그러면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 경청과 공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 학습 단계 II: 공감의 방해물들과 연결고리들

30 분

#### 전체 그룹 활동

무엇이 공감하는 경청에 방해가 되는가? 무엇이 공감을 돕는가?

I 부: 스티키 노트나 뉴스프린트를 사용해서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공감 능력을 늘리는 것과 줄이는 것들의 목록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라.

예:

- 특권
- 문화적 차이
- 삶의 경험
- 여행
- 개인적인 고통

2 부: 이러한 영향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공감을 저해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들을 나누어 본다. 이러한 항목들 가운데서 당신이 직접 경험한 것들은 무엇인가?

### 전체 그룹 보고

학습 단계의 마지막 10 분에는 다음 질문 중에서 적합한 것을 골라 이 활동 경험을 토론탐다.

- 어떻게 우리 교회 혹은 교단이 공동체로서 공감하도록 도왔는가?
- 어떻게 우리 교회 혹은 교단이 공감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을 만들었는가?

### 학습 단계 III: 경계를 넘어서는 공감

35 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에서 대릴 스티븐스는 <국경없는 의사회>라는 국제 단체의 사역과 활동을 묘사하고 있다. <적십자>의 사역과 반대로, <국경 없는 의사회>는 고통과 억압의 존재 앞에서 침묵을 강요하지 않는다. 의사들 팀들은 의학적인 도움을 필요한 이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도 있다.

증언하는 것은 우리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안되요하고 말하는 것이다. 증언을 하는 것은 우리 이웃이 완전한 인간으로 변명하도록 그들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다. 국경없는 의사회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들이 “고통을 줄이고,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인간 존재에 대한 존엄을 회복하고 그들의 근본적인 인권을 회복하는 일”이다. 인정받고 존엄성을 지키고 인권을 지키고, 기본적인 생필품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 이웃과 동행하는 일,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과 동행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46쪽).

<국경없는 의사회>에게 공감은 그들에게 행동하게 하고 동시에 증언하게 한다.

### 소그룹 활동

행동과 증언은 사랑과 정의를 위한 모든 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신의 소그룹에서 다음 움직임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각 움직임에 있어서 행동의 요소와 증언의 요소를 찾아 보라. 이 도표를 화상으로 워드(Word) 혹은 구글(Google) 문서를 이용해서 그림이나 글씨로 완성해 보라. 첫 이야기는 예를 들기 위해 이미 시작해 놓았다.

## 공감 도표

| 이야기 혹은 사건                              | 행동     | 증언                                      |
|--|--------|---|
| 히브리 백성의 출애굽 사건<br>(출애굽기 1 - 15 장)      | 재앙과 탈출 |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br>“내 백성을 보내라!” 미리암의 노래 |
| 인권운동, 1960 대                           |        |   |
| 국경없는 의사회 (45 - 46 쪽)                   |        |   |
| 적십자 (45 쪽)                             |        |   |
| 인권운동 갈등, 2020년 대                       |        |   |
| #미투 운동, 2010년 대                        |        |   |
|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br>(마태복음 19:13 - 15)     |        |   |
| 자기 백성을 구한 에스더 왕비<br>(에스더)              |        |   |
| 결혼 평등을 위한 투쟁 (2015)과<br>성소수자 보호 (2020) |        |   |
| 다른 어떤 운동을 생각할 수<br>있는가?                |        |   |

**화상으로 할 경우:** 이 공감 도표는 워드(Word) 문서로 만들어서 줌(Zoom) 화면에 보여줄 수 있다. 아니면 인쇄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전체 그룹과 공유할 수도 있다. 만약 줌으로 하면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여러 대답들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 전체 그룹 보고

이 학습 단계를 토론하기 위해서 마지막 10-15분은 함께 모이도록 한다.

당신의 도표에 대해서 무엇을 보았는가? 어떤 유형이 있는가?

어떤 다른 이야기들과 사건이 떠올랐는가?

만약 행동과 증언이 둘 다 공감에서 떠오른다면, 어떤 분야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동역한다. 이 교재의 본문에 있는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라.

###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리에서 발취한 질문

- 당신 자신이 경험하였거나 당신이 읽은 역사에서 교회의 도덕적 증언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는 어떤 증거를 당신은 보았는가?



**화상으로 하는 경우:** 각 소그룹 인도자에게 공감 도표를 워드(Word) 문서로 나누어 준다. 그룹 인도자들은 그룹 구성원들이 도표를 채우는 일을 함께 할 때 화면을 공유할 수 있다. 당신의 소그룹 인도자들이 이 활동을 부레이크 아웃 룸에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들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을 가지도록 도표와 지침을 미리 받게 한다. 함께 나누기 위해 전체 화면으로 돌아온다.



## 마치는 묵상

5 분

참가자들에게 공감의 독특한 면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 모임을 마친다.

공감은 동정이 아니다.

공감은 구세주 노릇도 아니다.

공감은 자신과 다른 이들에 대한 애정이다.

공감은 다른 이들과 감정 및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공감한다고 해서 당신이 다른 이들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다.

영국-파키스탄계 저자 모신 하미드(Mohsin Hamid)는 “공감은 자신 안에서 다른 사람의 메아리를 찾아 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은 늘려야 할 근육이다. 오늘 공감을 나눈 것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라.

## 묵상 일지 화면

다음 모임 전에 다음 질문들 중의 하나 이상을 (아래 나오는 교재에 나오는 생각해 볼 질문들을 포함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진다:

공감을 가지는데 당신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불안한 생각이 당신이 다른 이들과 온전히 함께 하는 것을 가로 막는가?



###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리에서 발췌한 질문

- 이웃에게 서둘러서 답을 주거나, 물건을 주거나, 도움을 주기 전에 그들과 온전히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sup>3</sup>



## 기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감정과 경험을 아십니다.  
궁극적인 공감의 형태인 성육신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형제자매 인류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이해와 은총을 허락하소서.  
아멘.

## 추가 성경 자료

*이러한 관련 본문을 계속되는 토론이나, 추가 학습 단계를 만들때나, 이니면 개념들을 더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사용하라.*

### 레위기 19:32-37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재판할 때에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힌을 사용하여라.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 골로새서 3:12-14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2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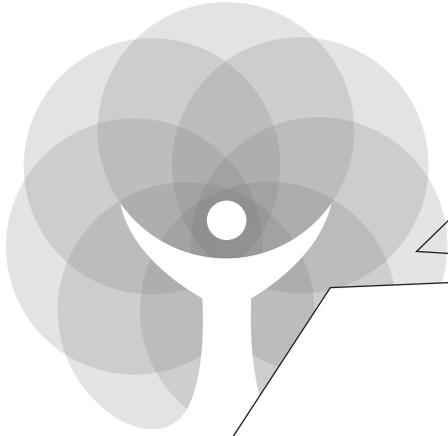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셋째 모임을 준비하면서 교재의 제 3장을 읽어라.

## 후주

1. 대릴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 “성찰을 위한 질문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 진보적 제자도를 통해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을 삶 속에 실천하기* (뉴욕: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2021), 34쪽.
2. 스티븐스, “성찰을 위한 질문들,” *보여주라*, 25 쪽.
3. 스티븐스, “성찰을 위한 질문들,” *보여주라*, 25 쪽.



## 셋째 모임

# 역사적인 조명

### 모임의 개요

시점: 과거

하나님의 은총과 활동: 의인은총, 용서

우리의 도덕적 활동: 기억과 회개

관계적인 맥락: 정의

도덕적인 강조: 관계를 바로잡기,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 모임의 목표들

참가자들은

- 역사적인 죄악들의 복합성과 우리와의 관련성을 탐구하게 될 것이다;
- 현재 나타난 제도적인 부정의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
- 제도적인 부정의와 맞서는 개인 및 교회의 역할에 대해 묵상할 것이다;
- 절망 한 가운데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찾아 볼 것이다.

### 준비물

권장하는 슬라이드 혹은 포스트 혹은 인쇄물들:

- 마음을 모으는 인용구들
- 서론적인 인용구들
- 묵상 일지 화면들

다른 준비물들:

- 뉴스프린트
- 마커
- 스티키 노트

## 모임을 위한 음원 자료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면 묵상 일지 쓰는 동안 자기 개인 기기에 수신기를 켜고 (혹은 모임을 화상으로 할 때는 자기 화면에서 소리를 묵음으로 해 놓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한 후 다음 노래들을 들어 보라고 권한다.

“메이크 룸,” 조나단 맥레이놀즈(Jonathan McReynolds)

“이사야 58 + 퍼지 미,” 어반 독솔로지(Urban Doxology)

“마이 월드 니즈 유,” 커크 프랭클린(Kirk Franklin)

“블레시드 어 어런스,” 찬송가,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369 장

## 마음을 모으는 인용구들

참가자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아래 요약된 저자가 말하는 이번 교재의 주요 주제들을 묵상하라고 초청한다. 또한 마가 복음에서 발췌한 본문을 읽어 보라고 한다. 이 인용구들은 뉴스프린트에 쓰거나 화면에 비출 수 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의로운 불만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원인과 설명을 찾게 하고, 유형과 관련성을 보게 한다. 역사적 조명을 통해 증언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한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책임을 실감하게 하는 기회를 준다(53 쪽).

### 시편 130

주님, 내가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죄를 지켜 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버티어 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 모이는 시간

10 분

첫째 모임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유한 가치가 있고 귀중하다는 바탕이 되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가치나 인간의 번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구조든지 도전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이번 모임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제도적인 부정의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하도록 도전한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전통과 문화의 문제점들을 검토할 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 61장에 근거한 교독문을 함께 읽고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편한 감정에 반응하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 보라.

인도자: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눌린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다함께: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깨어진 마음들을 싸매주고,  
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간힌 자들을 풀어주게 하셨다;**

인도자: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갓아주는 날을 선포하며  
우는 자들을 위로하고 시온에서 우는 자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라 하셨다.—

**다함께: 재 대신에**

**화관을,**

**통곡이 아닌**

**기쁨의 기름을,**

**겉에 질린 영혼 대신**

**찬양의 겹옷을 그들에게 주라 하셨다.**

인도자: 그들은 의로운 상수리나무라 불릴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이 심은 이들이라 불릴 것이다.

**다함께: 그들은 오래된 폐허를 다시 세우고,**

**이전에 황폐했던 곳을 일으킬 것이며;**

**무너진 성읍들과 여러 세대 동안**

**재난 지역이었던 곳들을 고칠 것이다.**

**화상으로 하는 경우:** 화면이 지연되거나 피드백이나 동시다발성 소음의 문제를 피하려면, 다른 이들이 묵음으로 하는 동안 두 사람이 주어진 부분들을 큰 소리로 읽게 한다.



##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하신 재판관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가난한 이들 사이에서,  
학대 받은 이들 사이에서,  
어린이들 사이에게,  
이방인들 사이에서,  
힘없는 이들 사이에서 주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제도적인 부정의 악을 살필 때 우리 마음을 열어 주소서.  
우리 가슴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보고 변하게 하소서. 아멘.

## 학습 단계 I: 우리가 그 속에서 헤엄치는 물

30 분

대릴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 운동은 제도적이고 역사적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차별의 유형을 회개하게 하라는 중요한 소명이라고 본다. 인종차별과 다른 형태의 차별과 증오는 우리 문화 속에 너무 깊이 파고 들어 있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헤엄치는 물과 같다—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우리와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듣기로 마음을 열면 진실이 드러난다.

이 활동의 전반부는 우리가 헤엄치고 있는 그 물을 검토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그 속에서 수영하고 있는 흐르는 강물의 모습을 그리거나 올려 보라. 만약 대면 수업을 한다면 참가자들에게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미리 판단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그룹들에 대해서 차별하게 하고 혹은 증오하게 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 물 속에다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 영향력들을 적어 보라.

예: 학교 수업에 사용하는 문헌들에 나타난 백인 작가들과 백인 주인공들에 대한 강조, 대부분 남성들이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들, 신체에 장애가 없는 이들을 위주로 고안된 수양회 활동 등등.

이 활동의 후반부는 다음 질문들을 방을 돌아가면서 뉴스 프린트에 적어 놓는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방을 돌아다니면서 다음 질문들에 대한 자기의 답을 뉴스프린트나 스티키 노트에 적게 한다.

- 만약 어떤 사람이 사회 정의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넓히고 싶다면 어디서 어떻게 그들이 배울 수 있는가?
- 우리가 수영하고 있는 그 물에 대해서 도전하고자 한다면 어떤 사람의 글을 읽고 강연을 듣고 소셜 미디어를 따라가야 할까?
- 어떤 정의의 운동을 언급할 수 있는가?
- 미국에서의 정의의 운동과 당신이 연결 시킬 수 있는 단어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어떤 정의 운동에 대해서 당신은 더 알고 싶은가?
- 어떤 정의 운동에 당신의 교회는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는가?
- 여러 다른 제도적 부정에 대해서 배우고 개입하는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변화로 이끌 수 있을까?



**화상 회의를 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화상 구글 잼보드 (Google Jamboard)이다. 이 화상 도구를 준비해서 각 질문이 위의 활동의 뉴스 프린트같은 독자적인슬라이드를 가지게 한다. 이 활동을 할 때가 되면, 우리가 이 공부의 다음 부분을 위해 협업을 하는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채팅방에 링크를 올려 주고 참가자들이 자기 기기에서 잼보드를 열게 한다. 우리가 10분에서 12분 정도 잼보드에 함께 내용을 첨가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참가자들은 화상 스티키 노트 위에 자기 생각을 적어더 더할 수 있다. 그리고 화면 위에 있는 막대를 사용해서 한 주제에서 다음 주제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용법을 미리 사람들에게 시범을 보여줄 수 있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미리 이 도구를 시험해 보라고 초청해서 그들이 이것을 익숙하게 다루게 한다. 잼보드는 이 활동을 하기에 편하다. 왜냐하면 시각적이고 상호적이며 우리 모두가 실시간으로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만약 잼보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질문들을 하나씩 제기하고 토론을 인도할 수 있다. 채팅 방에 “초치기 대답” 방식으로 주어진 질문마다 몇초 만에 답하게 정할 수 있다. 아니면 아래 있는 다른 활동을 사용할 수 있다.

### 대체활동: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에서 발췌한 질문



- 그룹에서 국제 연합의 세계 인권 선언의 일부분을 읽고 ([un.org/en/universal-declaration-human-rights](http://un.org/en/universal-declaration-human-rights)에서 찾을 수 있음) 어떻게 당신의 믿음이 이 문건에 확인된 보편적인 인간의 정치적 권리를 지지하게 했는지를 토론하라 연합 감리교회 사회 현장의 어느 부분이 이런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는가?<sup>1</sup>

## 학습 단계 II: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시 하기

45 분

교재 본문의 제 3 장은 회개와 회복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3명에서 5명의 네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다음 이야기들 중의 한 이야기를 더 깊이 검토해 보라. 그 이야기를 함께 읽고 전체 그룹에 보고 할 반응들을 준비한다. 보고할 때는 간략한 내용 요약과 그룹의 반응을 포함해야 한다. 요약과 반응은 어떤 형태로 해도 된다: 그림, 음악, 연설, 또는 일상적 나눔 등. 당신은 참가자들 중에서 대표할 한 두 사람을 정할 수 있다. (참고: 만약 20명 이상의 그룹을 인도하면, 한 이야기에 여러 그룹을 배정해야 할 것이다.)

- 우생학 연구에 대한 감리교회의 지원을 회개함 (61쪽)
- 연합감리교회 “인종차별에 대한 회개의 행동” (61쪽)
- 연합감리교회 미원주민들에 대한 공개 사죄와 결의문 (62쪽)
- 구체적인 사례 연구: 샌드크릭 대학살 (63-65쪽)

소그룹이 목상 반응을 준비할 때 교재에서 발췌한 다음 질문들을 이용해서 영감을 받게 한다.



##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리에서 발췌한 묵상 질문

1. 당신의 교회 예배 순서를 생각해 보라. 회개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회개 순서가 과거에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이 교재에 비추어서 회개 시간은 어떤 추가적인 의미를 당신에게 줄 수 있는가?
2. 당신은 회개를 정의의 행동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정의가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당신에게 어떻게 그 일을 돕는가?
3. 만연된 “백인 미국인 우월주의 태도”는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당신이 다른 인종이나 민족과 가지는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sup>2</sup>

### 전체 모임 보고

그룹들의 요약과 묵상을 보고한다. 각 소그룹은 4-5분 정도의 시간을 쓰도록 한다.

### 학습 단계 III: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30 분

우리가 우리 세상의 우울하고 파괴적인 면을 대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소그룹으로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이 교재 본문의 56-59쪽에 있는 제니 필립스(Jenny Phillips)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필립스(Phillips)가 어떻게 사람들이 기후 변화의 현실을 직면하는 슬픔의 과정을 걸어가도록 도왔는지를 설명한다.

대릴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는 그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관찰을 하면서 따라간다: “기후 변화같은 제도적 부정에 관한 한 우리 모두가 더러운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용서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에게 절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으로 무기력하게 마비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쉽게 세상을 구하는 일은 너무 벅찬 것이라고 압도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의 능력을 통해서 할 일이고 우리는 정의의 사역에 동참할 뿐이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미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다” (59 쪽).

이 인용문을 각 소그룹에 나누어준다. 소그룹들은 대화에 영감을 불어 넣도록 교재에서 발췌한 이 질문을 사용해서 전지구적인 고통당하는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슬픔을 토론하게 될 것이다.



##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리에서 발췌한 성찰을 위한 질문들

- 당신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슬픔의 단계들을 통한 개인적인 여정으로 생각해 보라. 당신은 무엇을 부인하고 있는가? 당신은 무어에 분노하고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타협하고 있는가? 당신은 무엇에 우울해 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떻게 문제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과 정의를 위해 일할 힘이 있는 것을 측정하는가? <sup>3</sup>

## 전체 모임 보고

이 단계의 마지막 10분은 당신의 그룹에서 떠오른 주제들과 유형들을 모여서 나눈다. 어디서 절망하였는가? 어디서 희망을 보았는가? 우리의 희망과 절망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마치는 묵상

5 분

### 묵상 일지 화면

다음에 나오는 인용구들이나 질문 들 중에서 하나 이상을 골라서 묵상 일지를 쓰거나 그리거나 생각을 적어 보라.

사랑은 우리 안에 의로운 불만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원인과 설명을 찾게 하고, 유형과 관련성을 보게 한다. 역사적 조명을 통해 증언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한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책임을 실감하게 하는 기회를 준다 (53 쪽).

죄를 깨어짐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기관들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죄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인들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관계에서의 치유를 필요로 한다.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부정의를 지적하게 되고 미래의 보상과 배상의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깨어진 관계들을 고치는 일에 합류한다 (55 쪽).

언제 당신은 부정의를 증언하였는가? 그것은 당신의 몸 안에서 어떻게 느껴졌는가? 당신은 어떤 감정을 경험하였는가?

어떤 분야의 부정의를 증언하는데 당신은 갈등을 겪어왔는가? 당신이 증언하는 쪽으로 기울고 증언하기로 정할 때 무엇을 찾았는가?

어떤 사람이 당신이 경험한 고통과 갈등과 부정의를 증언하였던 때를 기억해 보라. 그 경험은 무엇과 같았는가? 어떤 사람이 당신과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그것은 어떤 느낌이었는가?

## 기도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악의 유형에 침묵하고 악의 유형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침묵해 왔던 방식들을 떠올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시고 위로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에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 추가적인 성경 자료들

이 시편을 이용해서 토론을 계속하고, 추가 학습 단계를 만들고, 개념들을 더 충분히 살펴 보라.

### 시편 30

주님, 주께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시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니,  
저녁에는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아,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 주시던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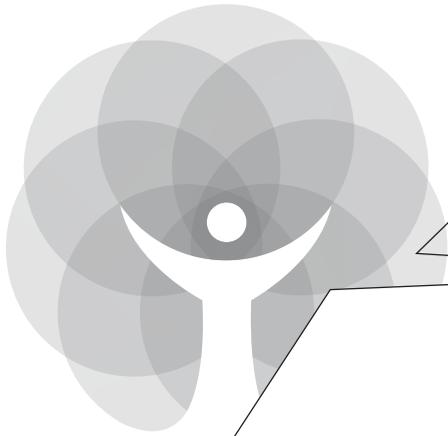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를 무덤으로 보내 놓고,  
주께서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내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넷째 모임을 준비하면서 제 4 장을 읽어 보라.

## 후주

1. 대릴 더블유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 진보적 제자도를 통해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을 삶 속에 실천하기* (뉴욕: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2021), “성찰을 위한 질문들” 22 쪽.
2. 스티븐스, “성찰을 위한 질문들,” 66 쪽.
3. 스티븐스, “성찰을 위한 질문들,” 59 쪽.



## 넷째 모임

# 의미있는 참여

### 모임의 개요

시각: 미래

하나님의 은총과 활동: 성화 은총, 화해, 평화

우리의 도덕적 활동: 상상

관계적인 맥락: 연대

도덕적 강조점: 모든 창조세계의 완전한 번성

### 모임의 목적들

참가자들은

- 치유와 화해의 미래를 상상하게 될 것이다;
- 우리가 이루어야 할 변화를 묵상하고 그것을 이웃과의 연대로 더 발전시킬 것이다;
- 이 모임들의 주제들을 구체화시키는 예배 경험을 만들어 낼 것이다;
- 함께 예배할 것이다.

### 준비물

추천하는 슬라이어나나 포스트나 인쇄물:

- 마음을 모으는 인용구들
- 묵상 일지 화면

다른 준비물들:

- 뉴스프린트
- 마커
- 스티키 노트 또는 노트카드

## 모임을 위한 음원 목록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면 묵상 일지 쓰는 동안 자기 개인 기기에 수신기를 켜고 (혹은 모임을 화상으로 할 때는 자기 화면에서 소리를 묵음으로 해 놓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한 후 다음 노래들을 틀어 보라고 권한다.

“프레이즈 투 더 로드 디 올마이티,” 찬송가,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139장

“슈얼리 굿니스,” 이스라엘 호튼(Israel Houghton)

“버드 셋 프리,” 킬라 세틀(Keala Settle)

“체인지드,” 아론 니퀴스트(Aaron Niequist)

“뷰티풀 핑스,” 군고(Gungor)

## 마음을 모으는 인용구들

참가자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아래 요약된 저자가 말하는 이번 교재의 주요 주제들을 묵상하라고 초청한다. 또한 마가 복음에서 발췌한 본문을 읽어 보라고 한다. 이 인용구들은 뉴스프린트에 쓰거나 화면에 비출 수 있다.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게 하고, 각 사람이 온전한 인간의 가능성을 다 발전시키도록 격려하는 것을 말한다. 변영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단지 몇 선택된 사람들이나 특히 경건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이 변성하도록 초청된다 (84 쪽).

믿음은 언제나 사회적 차원을 포함한다. 우리 안에서와 우리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아질 잠재성을 양육하는 것은 함께 교회가 감당할 공동체의 사역이다 (86 쪽).

### 영광스러운 새 창조: 이사야 65:17-25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백 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백 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 모이는 시간: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상하기

15 분

제 4 장은 교회와 우리 교단이 부정의에 저항하거나 공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열하고 있다. 비록 치유와 회복의 물결이 지속적으로 기독교 교회를 큰 틀에서 변화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이웃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해야될 일들이 많이 있다. 트위디 솜브레로 나바레테(Tweedy Sombrero Navarette)는 교회의 벽 밖에 존재하는 공동체 안에서 증언하는 일에 헌신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교재에서 나온 이 인용문을 나눈다:

존엄성과 사랑의 기반이 없이는, 회개의 시도는 흔들거린다. 내가 그녀에게 “2012년 총회에서 의 <원주민들을 위한 회개와 치유의 행동>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녀는 나에게 자기는 거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청중들은 아직 회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그 당시 백인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사람들이 물어봤다.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할일을 아직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아직도 한다면, 우리는 먼저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 쪽).

노트 카드나 스티키 노트를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더 깊이 배움과 고침과 회복과 치유로 움직여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적어 보라고 한다. .

## 기도

모이는 시간에 받은 내용들을 사용해서 노트 카드를 통해서 함께 기도한다. 자신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교재에 나오는 이 기도로 시작한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이웃이 나그네들일지라도 그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연대하게 하소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한 당신의 뜻을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도덕적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77 쪽).

**화상으로 하는 경우:** 노트 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참가자들에게 자기 생각과 말과 단어들을 채팅 방에 타이프로 쓰라고 한다.



## 학습 단계 I: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40 분

예수님은 많은 비유들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하는 서두로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같으니 (누가복음 13:17-19).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같으니 (마태복음 13:33).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같으니 (마태복음 13:47).

이런 비유들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공통된 이미지를 사용해서 올바르게 만들어진 세상의 본질을 설명한다. 예수님이 오늘날 말씀하신다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하실까? 그는 만화영화의 주인공들인 어벤져스 (Avengers)를 사용하실까? 저항하는 이미지? 월 스트리트(Wall Street) 이미지?

### 소그룹 활동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예시해주는 비유를 하나 고르게 한다.<sup>2</sup> 당신의 현재 상황에서 그 비유의 핵심을 잡아내는 촌극이나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 예를 들어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오늘날 어떤 이야기로 바꿀 수 있을까? 20 분 동안 이 일을 한다.

### 전체 모임 보고

이 학습 단계의 마지막 20분은 함께 모여서 당신들의 현대적인 비유를 다른 그룹들과 나눈다. 어떤 유형을 당신은 보았는가? 무엇이 빠졌는가? 누가 빠졌는가? 누가 대변되고 있는가? 성경의 비유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당신이 “무엇”과 “누구”가 빠졌는지를 인식할 때 거기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가?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일로 다가가지 못하게 밀쳐 놓지 않도록 어떻게 확실히 할 수 있는가?



**화상으로 하는 경우:** 줌이나 다른 화상형식으로 촌극을 만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화상으로 비유의 핵심을 찾는 다른 방법들도 가능하다. 함께 작업하면서, 이 자료들을 사용해서 파워 포인트를 만들든지, 포스터를 실제 혹은 화상으로 만들든지, 짤방(meme), 틱톡(TikTok), 혹은 트윗을 계속하거나 가상 페이스북(Facebook) 포스트를 할 수 있다. 창조성을 발휘해서 화상으로 비유를 제시해 보라. 이것들은 진지할 수도 있고, 생각하게 만들거나 유머스럽거나 동시에 혹은 모순적일 수도 있다. 그룹들이 15분에서 20분 안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듬거나 공식적일 필요가 없다. 한 번 재미있게 해 보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리에서  
발췌한 생각해 볼 질문**

- 왜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특히 도우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구원 활동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sup>3</sup>

**학습 단계 II: 예배 준비**

30 분

당신의 소그룹에서 폐회 예배 교독문의 한 부분을 준비한다. 그룹들은 기도문을 쓰거나, 성경을 읽거나, 목상을 큰 소리로 읽거나 나누거나, 노래를 인도하거나, 아니면 그룹들이 기여하자라는 마음이 든 어떤 예배의 부분이든지 고를 수 있다.

그룹들은 또한 공동 제단이나 중심점을 만들 수도 있고, 모든 모임들의 요소들을 통합하는 물건들이나 이미지를 (실제 혹은 화상으로) 놓을 수도 있다.

제안된 구조는 아래 있지만 당신 자신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

**제안된 예배 구조:**

- 예배의 부름:** 한 목소리로 읽거나 혹은 교독하면서 예배 공간을 여는 예문을 쓴다.
- 음악:** 익숙한 찬송가 혹은 간단한 코러스를 인도한다. 곡을 고르고 싶으면 미리 말해라.
- 성경 봉독:** 당신의 소그룹에 감동을 주었던 네 모임 중의 어느 성경 구절이든 골라 읽어라. 당신은 창조적인 방법으로 혹은 극적으로 읽을 수도 있다.
- 목상:** 이 경험이 당신을 얼마나 더 진보적인 제자도로 감동을 주었는지 하는 간증이나 목상을 나누거나, 여러 그룹 멤버들이 여러 짧은 목상을 나눈다.
- 응답:** 참가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나누어진 것에 응답하도록 추천한다. 이것은 토론이나 나눔을 더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상 일지를 쓰는 것처럼 개인적인 목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 마치는 기도:** 자신의 기도를 써도 되고 다음 쪽에 나오는 선택 폐회 기도문을 사용해도 된다.

## 전체 모임 보고

여러 요소들을 모아서 하나의 일관된 프로그램으로 만든다. 당신들이 기도하면서 나는 대화로부터 어떤 예배의 경험이 등장할 것인가?

**화상으로 하는 경우:** 화상으로 같이 노래하기는 힘들다. 예배 순서에서 이 대목에 이르면, 참가자들은 독창자가 되어 부르거나 아니면 소리를 묵음으로 하고 찬양 인도자의 노래를 듣게 된다. 아니면 음원에서 찬양을 틀고 참가자들에게 자기 기계에서 수신기를 가지고 (아니면 소리를 묵음으로 하고) 들으라고 한다.



## 학습 단계 III: 폐회 예배

30 분

제안된 순서 혹은 변형된 순서를 이용해서 함께 예배를 시작한다.

이 지침서의 서두에 나오는 인용구를 읽으면서 마음과 생각을 준비한다:

---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엇,  
더 거룩하고 모든 창조세계에 의미있는 무엇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신다.  
—대릴 스티븐스<sup>4</sup>

---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첫 그룹이 인도하라고 초청한다.

예배가 끝나면 모임을 마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가진다.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노력과 공헌에 감사하라. 참가자들이 모든 모임에 참여한 헌신에 감사하고 진보적 제자도 안에서 자라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마음을 연 것에 감사한다.

## 선택 폐회 기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95 쪽)서 발췌한 파멜라 브루베이커(Pamela Brubaker)의 기도:

우리로 언제 듣고 배우며, 언제 말하고 가르칠 지 알게 하소서. 우리로 히브리 백성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우리가 이사야에게서 들은 희망과 억압에서 탄생했지만 하나님 당신에게 뿌리를 둔 희망에 감동받게 하소서. 우리로 우리 이민자 이웃들의 희망과 근성과 강인함에 영감을 받게 하소서. 우리로 정의와 평등의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아멘. <sup>5</sup>

## 모임 후 묵상 일지 화면

이것은 모임 후 지속적인 묵상을 위한 숙제이다. 지침들은 인쇄해서 집에 가져가게 주든지 아니면 화상 대화를 통해 전달 될 수 있다.



사랑하는 교회에게,

교회가 마치 사도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도덕적 증인으로서 더 활발하게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교회에 편지를 쓴다. 당신의 교회가 참여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을 언급하고, 이 적극적이고, 의도적이고, 참여하는 사역을 당신이 하는 때 나눌 수 있는 당신의 장점과 교회의 장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구체적인 회개와 회복의 사역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초대한다. 당신이 그들에게 오라고 부르는 이 어렵지만 필요한 사역에서 초래될 그리고 가능한 것들에 대한 비전을 나눈다.

여기 교회에 대한 당신의 편지에서 골라서 언급할 수 있는 개념들과 질문들이 있다:

###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에서 발췌한 생각할 질문들



1. 살롬은 어떤 모습인가—당신에게, 당신의 교회에게, 당신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세상에서는? 당신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환경적 성결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당신의 공동체에 서는? 전국 혹은 구체적인 정치에서는?
2. 어떤 점에서 당신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에서 부족한가? 당신의 이웃과 도시에서는 온전한 번영은 어떤 모습일까?
3. 당신은 당신의 공동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화해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당신의 지역사회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오염되고 방치된 지역과의 화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당신의 상황에서 연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sup>6</sup>

만약 당신이 연회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경우 그 때를 위해서 이 예배를 나중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 화면을 마지막 모임을 위해 사용하고, 참가자들에게 자기들이 원한다면 자신들의 편지를 나누도록 제안한다.

## 추가적인 성경 자료들

이 관련 본문들을 사용해서 계속 토론하고, 추가 학습 단계를 만들고, 혹은 개념들을 더 충분히 조사해 보라.

###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기, 빌립보서 2:1-1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통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 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 **고린도후서 5:16-19**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 **후주**

1. 대릴 더블유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 진보적 제자도를 통해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을 삶 속에 실천하기* (뉴욕: 연합 감리교회 여선교회, 2021), 69-71쪽.
2.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kin-dom”)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 2쪽의 서론을 보라.
3. 스티븐스, “성찰을 위한 질문들,” *보여주라*, 40 쪽.
4. 스티븐스, *보여주라*, 3 쪽.
5. 파멜라 브루베이커(Pamela Brubaker), 설교, 산티 채플, 랭카스터 신학교, 2019년 11월 19일.
6. 스티븐스, “성찰을 위한 질문들,” *보여주라*, 88 쪽.

# 부록

## 첫째 모임: 학습 단계 III

세 명에서 네 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다음 문장들을 점토하도록 함께 작업하게 한다. 그들로 하여금 교재 본문의 설명에 근거해서 예절과 덕과 윤리를 구분하게 한다. 이 진술들이 맞거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누군가가 맞거나 틀리다고 보는 견해를 암시하고 있다. 당신은 모든 문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매번 당신 그룹에 있는 모든 이들과 결론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다. 불일치를 보게 되면, 그것을 적고, 우리의 삶의 경험들과 우리의 정체성들이 우리의 견해를 형성한 방식들에 대해서 계속 호기심을 가져 보라. 이러한 진술들 밑에 흐르는 윤리는 무엇인가? 어떤 도덕들이 변화하였고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이 진술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까?

- 훔치지 마라.
-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고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지 마라.
- 성관계는 결혼 때까지 미루라.
- 동물들을 인도적으로 대하라.
- 신체적 폭력이 잘못이고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 아이들 체벌도 잘못이다.
- 우리가 생명의 거룩함을 믿는다면 사형제도에 반대해야 한다.
- 우리가 실수로 자명 종을 듣고도 계속 잤다면 상사에게 감기가 걸렸다고 말해라.
-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다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라.
- 종업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주어라.
- 회전할 때는 회전등을 사용해라.
- 결혼식에서 불평하지 마라.
- 재채기를 할 때는 팔꿈치에 해라.
- 아이들이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강간이다.
- 살인하지 마라.
- 당신이 마음 속으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당신은 손으로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
- 상황극을 보거나 비디오 게임하는 시간에는 제한을 두어라.
- 아랫배가 보이는 블라우스를 입지 마라.



**아만다 마이젠하이머(Amanda Meisenheimer)**는 뉴욕시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Riverside Church)의 어린이 및 가족 사역부 담당 목사이다. 그녀는 스페인어와 중등 교육 전공으로 위튼 대학(Wheaton College)에서 학위를 받았고 유니온 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 석사를 받았다. 아만다는 목회, 음악, 그리고 교과 과정에 대한 다세대 및 치유적 접근법에 특히 전문이다. 그녀는 또한 리버사이드 어린이 보호 기금 프리덤 학교(Riverside Children's Defense Fund Freedom School) 총무로 일하면서, 문맹퇴치 프로그램과 사회 정의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제공한다. 그녀와 그녀의 두 자녀들과 뉴욕의 맨하탄에서 가정을 꾸미고 있고, 집에 우쿨렐레(ukulele) 악기도 있다.